

은평구립도서관 주부독서클럽 회보  
제6호(2009. 12.)

# 책을 닮은 사람들



사회복지법인 인숙원  
은평구립도서관

## | 발간사 |

2009년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우리 도서관의 주부독서클럽도 8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한 주부독서클럽은 회원들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의 독서 문화 습관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책의 의미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책을 가까이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이들도 책과 평생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장  
엄무성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에 이렇게 회원들의 글을 모아 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회원들이 도서관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책을 매개로 소중한 만남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 속에 출발하였던 2009년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참신한 도서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목차

'책을 담은 사람들' 소개 · 6

2009년 선정도서 · 7

독서후기 모음 · 19

## ‘책을 닦은 사람들’ 소개

개인 중심의 독서생활에서 탈피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적극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정서적 풍요로움 추구, 그리고 가정 내 독서토론 문화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들이 각종 도서관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그룹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회원구성 : 독서에 관심있는 주부

▷ 모집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문의 : ☎ 385-1671 내선 236)

▷ 정기모임 : 매월 2주, 4주 수요일 10시~12시

▷ 장소 :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 주요활동 : 독서 토론, 영화감상, 특별강연, 문학기행연 1회, 도서관 행사참여, 회보 발간, 독서감상문 기고 등

▷ 홈페이지 : <http://booklike.cyworld.com>



## 2009년 선정도서

### 1월 선정도서

- 공중그네 (오쿠다 히데오)
- 엄마를 부탁해(신강숙)



뽀족한 물건만 보면 오금을 못 피는 야쿠자의 중간 보스, 공중그네에서 번번히 추락하는 베테랑 곡에서, 병원 원장이기도 한 장인의 가발을 벗겨 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젊은 의사, 그들을 맞이하는 '염기 청신과 의사' 이라부. 이들이 별난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벌이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담은 작품.



소설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의 지하철 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기억을 복원해나가는 과정은 추리소설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개된다.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 2월 선정도서

-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로렌 슬레이터)
- 파피용(베르나르 베르베르)



세상을 뒤바꾼 심리 실험들을 소개하는 책. 인간 심리와 행동의 인과 관계를 발견한 20세기 천재 학자들의 실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인간의 행동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최초로 증명한 스키너의 상자 실험을 시작으로, 심리학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논쟁적이었던 10가지 실험을 펼쳐 보인다.



우주를 무대로 한 이 소설에서는 과학과 문학을 결합시키는 작가 특유의 재능이 돋보인다. 발명가 이브, 억만장자 맥 나마라, 생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바이스, 항해 전문가 말로리 등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 마지막 지구인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건 '마지막 희망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 3월 선정도서

-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백금남)
- 연을 쫓는 아이 - 영화감상



조선의 풍속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다룬 백금남의 역사 추리소설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 200여 년 전, 예도의 극장가에 혜성처럼 나타나 10개월간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일본의 천재 화가 도슈사이 사라쿠가 단원 김홍도였다는 가설을 토대로 한 픽션이다. 김홍도라는 역사적 인물의 삶과 예술에 소설적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굴곡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 원작의 영화. 주인공 아미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는 성장통과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굴절된 우정, 비밀과 배반, 양심의 가책과 보상이 복잡하게 얽힌 한편의 드라마가 아프가니스탄의 격동의 역사를 축으로 그려진다.

#### 4월 선정도서

- 설득의 심리학(로버트 치알디니)
- 바다의 기쁨(김훈)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여러가지 사례와 재미있는 상황들로 증명하고 있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등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해낸 소설가 김훈이 4년 만에 새롭게 펴낸 에세이집이다.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작가의 속내를 드러내었던 소설과는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상에 대한 깊은 사유와 명석한 판단력 그리고 통찰의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김훈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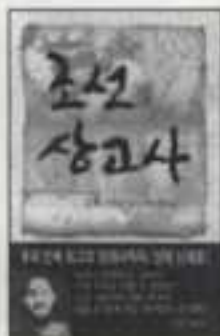


## 5월 선정도서

- 허삼관 매월기(위화)
- 조선상고사(신채호)



가족을 위해 피를 파는 한 남자의 고단한 삶을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낸 중국 작가, 위화 장편소설. 한평생 피를 팔아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속 깊은 아버지 허삼관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농담스럽게 껴안는 익살과 해학 그리고 그 뒤에 자리한 인간에 대한 속 깊은 애정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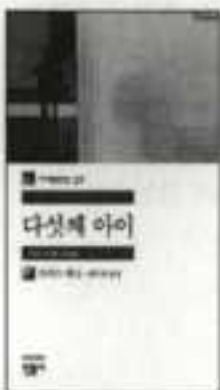
단재 신채호의 대표적 저술(조선상고사)를 현대인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 중국이 감추고 왜곡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사대주 의자 및 식민사관에 젖은 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되었던 우리 고대사의 참모습을 논리적으로 복원하였다.

## 6월 선정도서

- 선녀는 왜 나뭇꾼을 떠났을까(고혜경)
- 다섯째 아이(도리스 레싱)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침묵해 온 여성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심청, 콩쥐팥쥐, 해님달님, 나무꾼과 선녀, 공주와 바보 이반, 연이와 버들소년, 머리 아홉 달린 괴물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일곱 가지 옛이야기들을 통해 여성성이 건강하게 살아 있는 여성과 남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처 입은 여성성을 되살려내는 풍요로운 일곱 개의 마당을 전해준다.



영국 출신 여류작가이자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도리스 레싱이 예언하는 심오한 인류의 미래, 호러 기법으로 그린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 유전공학으로 인간까지도 복제되는 세기말, 이 책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근원과 가치에 대해 도전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 7월 선정도서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장영희)
- 구해줘(기욤 뭈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신체의 아픔을 희망으로 이겨낸 장영희의 이야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암 투병과 장애 등 암울해지기 쉬운 소재들을 긍정적인 유머와 위트로 펼쳐내는 독특한 그녀만의 에세이가 펼쳐진다. 장영희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낸다.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품고 뉴욕에 온 프랑스 여자 줄리에트와, 아내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생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난 의사 생이 운명처럼 만나 불꽃같은 사랑에 빠져든다. 48시간의 만남과 격정적인 사랑의 시간이 지나가고, 줄리에트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 8월 선정도서

- 퍼펙트 블루(미유베 미야키)
- 죽음의 증지(주제 사라마구)



‘추리소설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가 쓴 최초의 장편소설『퍼펙트 블루』, 198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남자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던 추리소설을 여류작가가 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음울한 사건과 어두운 분위기의 기존 일본 추리소설과 달리, 살인사건이라는 어두운 소재를 밝은 분위기로 그려내며 일본 추리소설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이번에는 죽음이 없는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묻는다. 마치 죽음의 여신이 파업을 벌인 것처럼 노화는 진행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작가 특유의 아이러니컬한 내레이션과 메타포가 돋보인다.

## 9월 선정도서

- 권정생작가 작품탐구 - 낭독회 준비
- 세종, 실록 밖으로 행차하다(박현모)



주부독서클럽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동화낭독회 동화나라 종지기 아저씨 권정생의 준비모임.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 「무명저고리와 엄마」, 「한티재 하늘」 등으로 유명한 권정생 작가의 작품세계를 탐구.



쟁쟁한 조선의 정치가 9인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가 세종의 모습을 그려낸 책이다. 위대한 성군,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 등 그동안 세종이라는 이름에 덧붙여진 수식어를 배제하고 혼탁했던 조선의 창업기를 지나 수성의 시대를 이끌어야 했던 정치가 세종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입체적으로 세종을 그려내며, 조선 초기의 시대상과 세종의 정치관을 짚들어본다.



## 10월 선정도서

-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김정운)
- 고민하는 힘(강상중)



어느 순간까지는 '무작정' 달려온 남자들, 그들이 왜 어느 순간 자아를 상실한 느낌이 드는지, 권위와 의무감에 발출구가 꼭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지, 어디서도 지친 영혼을 누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서인 셈이다. 남자들의 현실 키워드 '아내'로 대별되는 안정과 로망의 경계를 저자 자신의 경험에 비춰 풀어낸다.



저자는 엄밀하고 탄탄한 학문적 작업과 사회적인 발언으로 일본 사회과학계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는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학자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조언자로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쓰메 소세키와 막스 베버를 실마리 삼아 고민하는 삶의 방법을 말함으로써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 11월 선정도서

- 허(조경만)
-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 영화감상



소심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맛과 향을 불러온다. 따뜻한 밥냄새에 따라오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독특한 허브향의 이탈리안 요리에 뒤따라오는 첫사랑의 추억 같은 일상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며, 다채로운 음식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사랑, 욕망, 거짓을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 귀고리 소녀」는 화가의 살만큼이나 신비에 싸인 작품이다. 그림 속 소녀를 세상의 햇살 아래 불러내는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펼쳐지는 이 작품은 주인과 하녀, 화가의 모델, 스승과 제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마주 선 베르메르와 소녀 두 사람이 예술과 삶 사이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하고 열정 어린 드라마로 가득하다.

## 12월 선정도서

- 강화도 문학기행
- 블링크(말콤 글래드웰)



박완서의 중견소설 <엄마의 말뚝>의 배경지이자 고려시대의 강화도 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적 사실을 품고 있는 강화도 문학기행. 고려시대의 문인 백운 이규보의 묘역 탐방과 시작품 감상, 전등사 방문 등 문학으로 엮어진 사람들의 즐거운 여행.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복잡한 일을 맞닥뜨리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마다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된다.

이 책은 그 짧은 순간 동안 무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적 판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 체계를 조직화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

책을 담은 사람들

김영하

독서후기 모음



독서후기 모음

독서후기 모음

독서후기 모음

독서후기 모음

독서후기 모음

##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만으로-(전경린의 '엄마의 집'을 읽고)

• 김은경

전경린의 '엄마의 집'은 읽는내내 가슴을 따스하게 했다. 작가는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과는 달리, 다른 여자와 승지를 택한 아빠에 대한 원망, 딸 호은을 등지고 떠난 엄마에 대한 비난을 철저히 배제했다. 딸 호은의 담담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전체적인 글 분위기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편안했다. 흠어진 가족에 대한 과거 집착형 적개심이 표출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행복한 단어로 서로 상처를 공유해 가는 장면 장면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흠어져 있지만 홀로서기하기까지의 발판이 '가족을 믿고 이해하는 사랑'이었다. 이 위대한 끈이 그들을 묶어 놓을 수 있었고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했다. 나는 딸 호은과 미스엄마와의 사감에 시선이 머물렀다.

며칠 전 각양각색의 국화를 보았다. 그 가운데 앙증맞은 노란 국화가 군락을 이룬 모양이 참 마음에 들었다. 작고 예쁜 국화를 보는 순간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에게 딸, 딸에게 엄마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충족되지 않는 값진 인연의 선물이다.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에서 딸 워녕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고 엄마처럼 스스로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성



장하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시선을 나란히 해 준 엄마가 든든하고 멋져 보였다. 엄마는 성이 다른 아이들을 홀로 꾸러갈 때 타인의 파가운 시선이 마음 아팠고 우울하고 가슴이 뻥한 공허가 짓밟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단단히 땅에 딛고 서 있어야 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의 시선으로 상처받고, 저속한 내용의 뒷담화로 좌절했을 때도 딸 워녕이 엄마를 이해했기에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웠다. 전경린의 '엄마의 집'의 딸 호은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엄마였다. 아빠에게 딸 호은, 의붓동생에게 언니 호은, 미스엔 엄마에게 호은은 소풍의 대상이었다. 특히, 미스엔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엄마의 집에서 소소한 기쁨, 상처 등 다양한 감정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장면들을 대할 때는 작가의 말처럼 모녀관계를 넘어 또 다른 인간과의 동등한 사귄이었다. 여자의 일생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며 가야 할 친구, 남편, 시대, 사회 생활... 함께 대상을 탐색하고 속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여자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일이다. 인간적인 공허와 경제적 강박이 외풍처럼 넘나든다 해도, 나의 집을 가지고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은 초월적일 만큼 즐거운 일이다.”

가장이라는 울타리가 소멸되고 모든 문제를 통제해야 할 사람이 엄마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딸이 된다면, 값진 인연의 선물이라는 이유로 감내하기엔 벗겨내야 할 포

장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에게 딸이 있고, 딸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란히 두 손을 꼭 잡고 화사한 들국화 포장지를 사러 갈 수 있을 것이다.

## '소년의 눈물'을 읽고

· 김명희

구파발, 진관내, 외동이 철거되고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3년전 늦가을 부랴부랴 이사짐을 쌌다. 도서관 근처에 집을 구하고 싶은 욕심을 접고 몇군데 더 발품을 팔아 지금 살고 있는 선일학교 옆 산 아래에 간신히 동자를 틀었다. 처음 2년동안은 막내가 다섯살이고 또 내가 멀리 걷는게 힘들어서 매일 동네 놀이터에서 오후를 보냈다. 작년 11월 어느날 동네 아줌마가 딸이 한자공부하는 동사무소에 가방을 가져다 주러 간다가에 막내손을 잡고 무작정 따라나섰다가 큰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어쩌다 찾아 오는 행운이란 바로 이렇게 아닐까? 독서클럽을 만나 다시 책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 행운은 아늑하고 따뜻한 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맘껏 볼수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뭏든 '소년의 눈물'은 이렇게 나와 인연이 되었다. '소년의 눈물'은 1995년에 일본 에세이스트클럽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작품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난 서경식 교수의 영혼의 성장기이며 자전적 에세이다. 책벌레였던 둘째형의 영향을 받아 책을 유난히 좋아했던 저자의 어린시절 독서 이야기가 교토 시내 서민 동네를 배경으로 재미있게 엮어져 있다. 어릴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저자의 어머니는 가난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아들들이 책을 좋아하는 것을 퍽 자랑스러워 하였고 코흘리개 어린아들이 종알종알 책의 내용을 재잘거리기라도 하면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신

것 같다. 저자가 아파서 학교를 빼먹은 다음날도 학교에 가기 싫을 때  
 이불을 꼭 뒤집어 쓴채 버티면 채근하시다가 결국 당신의 일이 바빠  
 지게 되면 체념하셨다고 한다. 가끔은 빗자루로 호되게 매를 맞은 적  
 도 있지만 거꾸로 딱이 베갯머리에 놓여 있기도 했다고 한다."죄의식  
 은 있어서 빗자루보다는 베갯머리의 딱이 더 가슴을 저며 왔지만 이  
 렇게 힘겨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신명이나서 서둘러 보고 싶  
 은 책을 쌓아두고 아무 간섭도 받지않고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공부  
 가 아니라 큰 즐거움이었다고 회상한다. 오늘 기말고사를 보는 5학년  
 큰애가 도서관에서 내가 빌려온 책을 어젯밤 11시까지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당장 급한일을 해야지 안하면 후회한다고 말하다가 저자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떠올라 잔소리를 중단하고 말았다. 저자는 어릴적  
 읽은 책의 제목과 내용을 그 기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읽은 책의 분량이 적지않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며  
 칠전 내가 작년에 2개월동안 읽은 도서목록을 방정리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떤 제목은 처음보는듯 아직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지  
 금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자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i am a  
 japanese' 라는 문장을 배울때 말을 안하다가 선생님의 독촉을 서너  
 차례 받고 "하지만 저는 일본인이 아니라..." 그때 '조선인 이라는 말  
 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물랐다고 저자는 말한다. 선생은 'korean'  
 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것일랑 생각하  
 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나 하라며 불쾌해했다고  
 한다. 출신과 문화를 홀로 등에 짊어진 채 다른 모든 학생들과 정면으  
 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하니 조숙하고 영리한 소년이  
 예민하게 느꼈을 차별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같은 동포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이름이 처음에 낯설지 않아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넘기다가 둘째, 셋째형이 한국유학생활동중 1971년에 정치범으로 구속되어 19년, 1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살아 출옥한 서승, 서준식 씨라는 것을 알고 이책을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만으로 감상하기에는 미안하다는 생각이들었다. 아픈 가족사가 너무 절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랜세월 옥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두형을 도울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을 저자는 중국작가 루쉰의 작품을 읽으며 위로받고 인내한것 같다. 괴로움과 고난의 오랜세월을 곳곳하게 견뎌낸 저자의 가족에게 존경의 마음이 드는것은 사소한 일상조차 힘들다며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은 아닌지 나부터 먼저 반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된다. 혹시 책장과 서랍속에 살아남아 있는지 모를 어린시절 일기장을 한번 찾아보고 지난날의 나도 꿈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보는것도 좋지않을까?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 • 전향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낙서 몇 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신영복 선생님이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0개월을 복역하면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옥중서간집이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무기수였던 저자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부분 발췌된 글을 읽으며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싶어서 내가 추천한 책이었는데 쉽게 읽히지가 않았다. 한자가 많이 섞여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장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심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때문에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일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이 더해져 내가 과연 이 책을 계속 읽어도 되는지 마음이 무거웠고 머리도 복잡했다. 그것은 독서를 하거나 교육을 받으며 지식의 양을 늘린다고 자위할 뿐 생활 속에서는 조금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조용하고 메서운 회초리로 다가왔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책을 거의 다 읽은 날에 나는 많이 아팠다. 추운

곳에서 포그리고 앉아 새벽까지 책을 읽은 것은 그날까지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왠지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로는 읽고 싶지 않은 나의 유치한 감성도 작용했다. 덕분에(?) 나는 그날 독서를 함에 참석조차 못했고 이후로도 열흘 정도를 감기몸살로 심하게 앓았다.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다고 적었지만 그 아픔이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점점 낙서가 되어간다. 그래도 낙서 하나만 더...

책 속에서 책은 조금만 읽겠다는 글귀를 보고 나도 책을 조금만 읽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나는 신영복 선생님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읽긴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책속에서 많이 언급된 것처럼 책을 읽고 나면 사색하고 실천하는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실천→인식→재실천→재인식의 반복) 나는 정말 책을 아주 조금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관념적으로만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한 발 걸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다른 발은 더욱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훌륭한 책을 읽으며 나는 정리되지 않는 잡다한 낙서만을 남겼다. 정리를 할 수 없기도 하고 아직은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 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보고 싶다.

## 공중그네

---

### • 전행반

사람들은 보통 정신과 의사라면 친근하고 따뜻하며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길 기대한다. 나 역시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일거라 기대했다. 그런 의사 앞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을 다 털어놓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시작할 수 있을테니까... 하지만 '공중그네'에서 신경정신과 문을 두드리는 5명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독특한 의사를 만나게 된다.

끝이 뒤흔뜩한 물건만 보면 오금을 못 펴는 야구자 중간보스,  
어느 날부터 공중그네에서 계속 추락하는 배테랑 곡예사,  
장인의 가발을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정신과 의사,  
내야 땅볼을 잡아 1루로 송구하지 못하는 올스타 출신 프로야구 스타.

자신의 전작 즐거리를 기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구토를 하는 유명 여류 작가.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꽤 많은 것을 이루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고민과 부정을 거듭하다가 지루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과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라부라는 의사는 좀 특이하다.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하고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두려우셨겠군요.’ 이런 공감의 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통찰력 있는 조언도 없다. “일단 주사부터 한번 맞고 시작 하자구~”, “해? 난 잘 안 읽어. 근데 나도 책 한번 내 볼까? 연결 좀 해 줘~~” 한마디로 예측불허! 제멋대로다. ‘무슨 의사가 이래?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도 묘한 이끌림에 이라부를 다시 찾는 사람들의 패턴도 흥미롭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뜨악한 기분을 느끼지만 철부지 같이 자유롭고 솔직한 이라부를 대하면서 점차 억누르고 있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등장인물 5명이 모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베테랑이라는 점과 그들의 강박증,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신과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이라부의 모습이 무척 대조적이다. 작가는 오히려 정신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이(奇異)한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었던 것일까.

“치료는 무슨 치료야. 환자 결박시키고 주사나 놓는 주제에.”

“이런 치료도 있는 거지. 뭘 고름은 짜서 짜버려야 빨리 낫는 법이야. 피도 조금 같이 나오긴 하지만.”

증상이나 주어진 상황은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이라부는 조금 독특한 방법이지만 환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

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냈다.

이런 치료도 이런 정신과 의사도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다. 물론 자타가 기대하는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누르고 부정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쳐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글이 생각난다. 결국 '정신과 의사는 어때야 한다, 나는 어때야 한다.' 라는 당위성과 비교 의식이 '우열'이라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만들어 냈다. 인생에 무슨 법칙이 있으며 무슨 정답이 있을까? 남과는 다른 본연의 '나'를 인정하고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놓여날 수 있다면, 그렇게 공중그네를 탈 수 있다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나 파트너의 심보 따위를 계산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멋지게 그네 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마음껏 즐겼으니 즐겁지 않은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유쾌한 이야기를 만나서 더욱 반갑다.



모든 판단은 내게 달려 있다.(공중그네를 읽고)

---

• 김은경

나는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는 동생이 찾아와 자신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단점을 잘 아는 데 고치지 못하는 자신이 싫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했다.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동생이 괜찮아 보였다. 단점을 알면서도 내보이지 않으며 그것을 감추려고 겹겹이 포장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공중그네”

우리의 인생도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공중그네 플라이어처럼 희열과 불안의 공존줄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인생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편 단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정신적 강박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작가는 주인공들의 내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실수도, 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들킨 것 같은 찜찜함도 남기게 하지 않았다. 단지 이라부라는 특이한 정신과 의사를 등장시켜 주제를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형상화했다. 주인공들의 내면의 문제를

본인이 직시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했다.

이라부는 업기적인 행동으로 각 주인공들의 현실 생활에 직접 참여했다. 의사가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그 속에서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한다. 이라부는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때로는 충만한 호기심으로 환자에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힘을 부여한다. 그 과정이 아주 코믹해서 슬프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자신의 내부 세계 밖에 없다는 심리학적 해결이 참으로 현실적이다. 결국 자신이다. 그 밖엔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환자가 자책감이나 열등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심리적 방황을 할 때 통쾌하게 현실 속으로 끌어내준 이라부에게 아닌 이라부를 탄생시킨 오쿠다 히데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편,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책 속 주인공이 되어 함께 느껴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잠시나마 찾고 불안이 아닌 희열을 느끼는 능동성이 부여되었다면 2009년 첫 선정도서로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업기적인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 책을 덮는다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면목을 공감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는다.

##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

### • 이산애

하나, 부탁해. 엄마를...

'엄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줘. 이 문제 좀 해결해줘. 엄마는 그것도 못 해. 엄마면서...' 우리가 엄마에게 했던 그 말들은 부탁이었을까요? 요구, 짜증, 때론 온건한 협박!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의 부탁을 들어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엄마의 부탁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부탁한다. 좀만 생각해 다오. 조심해야 한다.' 엄마의 말들을 귓등으로 들었던 우리도 어느 순간 엄마처럼 자신을 부탁할 그 때가 오겠조. 나처럼 엄마의 부탁을 눈치채지 못 하고 짜증을 부리면 얼마나 서글퍼 질까요? 내 아이들한테, 그런데도 정말로 엄마를 만나면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 하는 나는 참 모순덩어리조.

둘, 강한 여자, 그러나 여린 사람.

남편의 부재, 시누이의 매서움, 내 맘을 알아주던 시동생의 죽음. 엄마는 그 속에서도 강인했지요? 엄

마에겐 여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죠. 우리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강인했으니까. 그렇게 바보라서 엄마도 감정이 있는 여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했네요. 오래 산 집처럼. 너무 익숙해 어느 순간 물이 새어야, 벽에 금이 가야 그 집이 나이 들었다는 걸 알아채는 것처럼. 엄마의 두통을 이해하지 못 했네요. 그저 머리의 통증이라고만, 약을 먹으면 낫는 의학적 병명으로만 알았네요.

셋, '엄마! 부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엄마. 왜죠? 미워하고 측은해하고 그리고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또 미안해지고. 엄마! 내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들어준 사람이기에 다시 또 엄마를 찾아요.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 아무리 나를 탓 하고, 나를 나무라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사람. 그 사람은 엄마잖아요. 엄마. 늙어버린 나의 강하고 무섭고 귀엽고 이젠 약해져버린 엄마. 자주 엄마란 말에 눈물이 나요. 엄마!!

##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

### • 조재숙

이소설의 이야기는 4명의 자녀를 둔 노 부부가 생신을 맞이하여 서울의 아들네 집을 찾아 상경하였다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어머니를 잃어 버리고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자식들은 마중 나가지 않은 것에 서로를 탓하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각자 어머니와 지내온 그 세월을 회상하면서 사라지고 없는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기억을 하나하나 복원해 갑니다.

늘 그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었기에 새삼 존재조차도 잊고 있었던 가엾은 한 여자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작가가 되어 있는 말을 늘 대견해 하면서도 정작 당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십니다

배움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한 없이 희생만을 요구하는 한국 여성의 전형적인 어머니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한번도 아내를 보살펴 주지 않는 남편 그 무심함을 넘어 여자를 집에 들여 오기도 하고 급기야는 기분 내키는대로 살림을 차려 나가기도 합니다. 늘 술을 즐겨 마셔 어디 탈나지 않나 항상 조마조마 하시던 어머니 그러나 큰소리 한번 안하십니다.

집안일의 대소사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당신의 손을 거치면 텃밭에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고 집안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에 본인이 할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실종된 엄마는 죽은 혼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며 걱정과 당부를 합니다 늘 위험적인 고모와 시동생과의 가슴아픈 기억 늘 힘들고 어려울때 같이 했던 그 남자...그리고 막내 딸도 들여다 봅니다. 아기를 셋씩이나 낳아서 자신을 보살피고 가꾸기는 커녕 너무나도 고단하게 정신없이 사는 모습에 너만큼은 다른 삶을 살거라고 생각했다며 딸을 안쓰러이 내려다 봅니다.

이 세상에 영화나 음악이 있다는 것도 너를 통해서 알았다고 가난으로 부터 자유로운 너여서 뭐든 맘껏 자유로워지기를 바랬다고...

그런 딸이기에 셋째 아이를 안고 내 집에 들어 왔을때 지었던 내 표정을 용서를 빌고 싶었다고 그게 늘 마음에 맺혀 있었다고 엄마는 혼자 말씀하십니다 늘 따뜻하고 희생만 하신 어머니 늘 우리 곁에 마냥 끝까지 지켜줄것만 같은 어머니

세월은 가고 그 어머니도 떠날 것입니다.

-말이란 게 다 할 때가 있는 법이다...나는 평생 너 엄마한테 말을 안하거나 할 때를 놓치거나 알아주었거나 하며 살았구나. 인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디 들을 사람이 없구나...(198쪽)

아버지의 독백처럼 이 세상의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우리 자식들이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설득의 심리학

### • 김은경

정보의 홍수는 선택의 다양성이다. 쏟아지는 정보더미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는 정확한 선택에 늘 신중하고, 잣대를 재게 된다. 주어진 조건에 즉각적인 회답이나 선택의 상황에서는 적지않은 혼돈을 부른다.

“내가 설득을 당할 것인가? 내가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차압디나는 사회에서 실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직접 사회 단체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심리를 체험했다. 그 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을 선보인다. 학문적 논의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된 현상을 종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기 스테디 셀러로 말이다.

1) 상호성의 법칙 : 報恩정신은 인간 문화의 독특한 소유물이다. 상호교환주의 같은 인생의 커다란 규칙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의, 선물, 초대 등은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 생각한다.

2) 일관성의 법칙 :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은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간다. 선택에 일치시켜 자신감을 조율해가는 자

기 합리화 작업을 한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책임감을 갖게 된다.

3) 사회적 증거의 법칙 : 다른 사람이 하는대로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수의 무지효과에 의해 당신의 상황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단 한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일부분만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

4) 호감의 법칙 : 후광효과(어떤 사람의 긍정적 특성하나가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사성의 효과(비슷하면 좋아한다.) 잘생긴 사람에게는 거의 무의식, 자동적 반응 형태를 띤다. 칭찬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상호협력은 호감을 크게 만든다.

5) 권위의 법칙 :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 상받은 상품, 큰 체구, 높은 직책, 우아한 옷차림에 약하다.

6) 희귀성의 법칙 : 한정판매, 백화점 마지막 날에 사람이 몰린다.

여기 6가지 불변의 법칙은 보편적인 원리일 것이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킨다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판매의 속임수가 즐비한 요즘에 낭패보는 일이 드물어 질 것이다. 인간관계 관련 서적에도 로버트 차알디니의 이론이 꽤 인용된다. 사회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알면 일상이 좀더 수월하겠지.

##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 조재숙

이소설은 얼마전 영화에서 소개되어 있는 피츠제럴드의 소설로 한 권속에 여러편이 실려있는 것중의 하나이다

단편에 가까워 한번 책을 잡으면 금방 끝낼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이야기는 로저버튼 부부의 아이가 이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황당하고 기이한 소동이 벌어지면서 시작된다

여느 아빠와 마찬가지로 버튼씨도 많은 기대와 설렘속에 신생아실을 찾아가지만 이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일아...

급기야 산모는 사망에 이르고 망연자실한채 그가 본 광경은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일흔은 족히 되어보이는

노인이었던것 외형의 모습뿐이 아닌 말하는것도 노인 그대로가 아닌가

노인의 모습인 벤자민 아기의 자신도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것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느 잡지를 뒤져봐도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자신과 같은 사례가 없었다

아버지의 재촉에 의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놀아보려 해도 온몸이 쭈시고 부서지는 것 같고 골절이 날까와 걱정이 되는

70의 노인 모습 그대로이다

어느날은 버튼씨가 피워대는 시가를 벤자민이 피워대서 방안에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고 웃지 못할 사건이 여기저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도 가고 그나이에 맞게 성장과정을 거치며 무던히 애를 쓰지만...

세월이 흘러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여 자식도 생겨 부모가 되어간다

그런데 자신은 나이가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닌가

피부가 점점 보송보송해지고 노인의 모습과 행동은 점점 사라져간다

이미 이 독특한 소재를 브래드피트의 연기로 잘 표현되어 있어 한껏 재미를 더한다

## 소설과 영화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를 느껴 보길...

1972년 12월 4일

오, 그렇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972년 12월 11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있는데, 아마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972년 12월 18일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허삼관 매혈기를 읽고...

---

### • 전행환

〈세상 모든 허삼관들...〉

무서운 기세로 퍼붓는 소나기에 놀란 노점상들.  
콩, 보리, 야채가 비에 젖지 않게 덮어놓고 서둘러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가 비를 피한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 내 주변에서 숨 쉬는 허삼관을 본다.

〈허삼관 매혈기〉는 한평생 자기의 피를 팔아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  
해내는 허삼관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한바탕 루념을 늘어놓고는  
또 다시 기운을 차리고 가족을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허삼관, 큰  
태풍이 지나가도 그 안에서 묵묵히 가족을 돌보는 그의 모습이 애잔  
하고 사랑스러워 책을 읽는 동안 종종 눈시울을 붉혔다.

허삼관의 삶은 고단하게 느껴지지만 고통과 웃음이 공존하는 그의  
삶은 결코 처량하지 않다. 누구보다 강인한 민초들의 삶, 김수영님의  
〈풀〉이라는 시와 이미지가 겹친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농청스러운 익살이 허삼관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살아 있어줘서 참 고마운 허삼관.

그러나 잇을 뻔했다. 지금 내 주변에도 수많은 허삼관이 있음을. 힘들고 억울하다고 가끔 푸념도 하지만 또 묵묵히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허삼관들... 밧사밭씩 피를 계속 뽑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 계속 피를 파는 허삼관의 모습은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네 가장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집단해고에 항의해 목숨까지 내 놓고 단식투쟁을 하는 정리해고자들. 그동안 팔 수 있는 젊음, 자존심까지 모두 팔았지만 세상은 이제 그들의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 집안의 가장인 그들은 이제 단 하나 남은 생명을 팔려는 것이다.

그들의 치열하고 힘든 투쟁이 언제쯤 끝날지... 거센 소나기가 그친 후 풍, 야채를 주섬주섬 챙기는 노점상의 고단한 일상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덜덜 떨리는 시린 속을 따뜻한 황주 한잔으로 달래고 농청스럽게 웃으며 건디다 보면 언젠간 소설 속의 허삼관처럼 편안해지리라...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허옥란이 허삼관에게 따뜻한 황주 한잔을 건넸듯 오늘은 나도 내 곁의 젊은 허삼관에게 따뜻한 술 한잔 건네주고 싶다.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고...

허삼관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  
끔 주변을 주의깊게 둘러보면 허삼관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을 읽고

### • 이산애

#### 역사 속에서 찾아낸 기발한 상상력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가지 루머들이 떠돌았다. 그 중에는 그녀가 이중 스파이었다는 설도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는가? 유명인과 스파!

그런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가는 김홍도를 일본의 유명화가와 동일 인물이라고 전제한다. 정조대왕의 특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 김홍도! 그는 일본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정조대왕의 밀명을 수행한다. 그 와중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작가는 사라쿠와 김홍도의 그림을 비교하며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미지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주 설레곤 한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도 그랬고 서동요도 그러했으며 향가에 자주 등장하는 수로부인에 대해서도 무수한 궁금증으로 상상의 나라를 떠돌았다. 과거 속 이야기는 많은 상징과 은유로 이뤄져 있어 그 상징과 은유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역사스페셜의 광팬인 이유도 그러하다.

그런데 발칙하게도 작가는 만속화가의 대가인 김홍도를 스파이로  
둔갑시키지 않았는가?

그 하나만으로 나의 오감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켰다고나 할까? 처  
용가의 차용이 실제로는 아랍인이었다는 주장, 공무도하가의 백수광  
부가 박수무당이었다는 주장, 이런 기막힌 상상들이 어쩔 역사의 진  
실은 아닐런지.

기록되어지지 못한 그 많은 일상과 생각과 문화와 풍습! 나는 그것  
들이 너무스럽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리운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  
르겠으나 향수처럼 밀려드는 궁금증이 내 오장육부에서부터 꿈틀댄  
다.

과연 김홍도는 일본으로 건너간 밀사였을까? 그 대단한 예술가가  
과연 일본의 대가와 동일인이었을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호기심에서  
부터 나는 다시 역사를 넓게 보는 연습을 하려한다.

## 목이 메여 읽은 '도가니'

---

### • 아산에

안개 속 도시 무진의 한 농아학교에 강인호라는 삼십대 중반의 기간제 교사가 부임한다. 아내의 권유로 떠밀려 온 무진, 짙은 안개와 말 못 하는 아이들, 기괴한 비명, 자살, 그 기괴한 비명을 못 들은 척 하는 교사들은 수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자격 미달의 교사들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폭력과 폭행을 맞다트린 강인호는 점점 그 사건 속에 말려든다.

책을 읽으면서 목이 메이고 얼굴이 붉어진다. 야만의 폭력과 기독교인들의 악랄한 자기 합리화에 어리고 약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짓어겨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발정난 수캐들의 나라, 그 수캐들은 더욱이 권력을 쥐고 있으며, 부를 쥐고 있고, 지방의 유지이거나 높은 교회의 장로이거나 사립학교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등식이 성립된다. 법이 보호하는 것 또한 이들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눈사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단지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다. 권력이 없고, 부가 없고, 더불어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 모두는 발정된 수캐들에게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지영에 대한 여러 구설과 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즐거운 나의집'을 읽은 독자들은 세번이나 이혼한, 그것도 성씨가 다른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 그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녀의 집안이나 학벌, 거기에다 미모를 내세우는 그녀의 카탈스러움에 다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면서 그리고 그녀의 탁월한 심리묘사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인용한 엘뤼아르의 글을 인용해 본다.

"미화된 언어나 진주를 꿰 듯 아름답게 포장된 말처럼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진정한 시에는 가식이 없고, 거짓 구원도 없다. 무지개빛 눈물도 없다. 진정한 시는 이 세상에 모래사막과 진창이 있다는 것을 안다. 왁스를 칠한 마루와 헝클어진 머리와 거친 손이 있다는 것을 안다. 뻔뻔스러운 희생자도 있고, 불행한 영웅도 있으며 훌륭한 바보도 있다는 것을 안다. 강아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갈레도 있으며, 들에 피는 꽃도 있고, 무덤 위에 피는 꽃도 있다는 것을 안다. 삼 속에 시가 있다."

##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

### · 이신애

과거 역사에 대한 궁금증은 내 호기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련한 향수같은 것이어서 항상 설레인다.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는 500년전부터 근대까지의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일상들이 소개되어있어 흥미진진하다. 더구나 뒷편에 적어놓은 참고문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여 지은이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의 일상으로 빠져보자.

#### 하나. 푸른 머리 사내종, 벌건 다리 계집종

창두적각이라는 말은 하나라 풍속에서 유래된 말로서, 푸른 머리 창두(蒼頭)는 머리에 푸른 두건을 동여맨 사내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벌건 다리 적각(赤脚)은 검붉은 다목다리를 드러내놓고 사는 계집종을 가리킨다.

노비는 크게 선을 그어 구분하면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구분하는데, 사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올라 있는 슬거노비(率居奴婢)와, 주인과 멀리 떨어져 독립된 호적을 지니고 있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뉜다. 외거노비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신 가을걷이 후에 일정량의 쌀, 무명, 생선, 풀, 종이 등을 바치고 주인의 간섭을 별로 받



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특히 성종 때 충청도 진천에 살고 있던 임복이라는 사노비는 수천 석 재산을 지닌 노비로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되어 있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권은 주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종년 간통은 누운 소 타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집종의 정조는 무가치한 것이었다. 더구나 종값은 말 값 보다 쌔므로 사내 종의 결혼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노비들은 혼인이 깨져 배우자가 바뀌는 일이 잦았고, 아버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종모역법(從母役法)'으로 '종은 어머니를 따라가라'고 규정하였다.

#### 둘. 이름도 못 남기고 사라진 범

십여 년 전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의 첫머리에 '옛날 어린아들은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운운하는 대목이 있었다. 마마, 전쟁이야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호환이 도대체 어 뻘했다는 건지도 통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옛날에는 호랑이가 일상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일년의 반은 사람이 범을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범이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태종 때에는 경상도에서 몇 달 사이에 기백 명이 호랑이에게 물렸고, 인조 때에는 평안도 의주에서 호랑이가 때로 성안으로 밀려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해친 일이 있었다. 또, 18세기 초 숙종 때에도 6, 7년 사이에 강원도에서 3백여 명이 물려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

더구나 삼국유사 에는 현강왕 때 대궐 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태종 초에도 호랑이가 대궐 담을 넘어 근정전 뜰에 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16세기 선조 때에는 창덕궁 안에서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린 일이 있었고, 창덕궁 후원 숲 속에서 암범이 새끼를 쳤다는 말이 나돌아 장수들이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을 넘어 숭배를 자아내는 경지에 이르러 산신각 안 뒷벽에 산신 할아버지와 호랑이가 그려진 산신병화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발톱으로 노리개를 만들어 액운을 막는 데에 쓰였다.

그러나 총포 성능이 우수해지면서 1935년 스웨덴의 생태학자이자 사냥꾼이었던 슈텐 베리만이 한국에 왔을 때 백두산 밀림을 뒤져도 찾아내지 못했을 만큼 이미 멸종상태에 이르게 된다.

### 셋 새벽에도 먹은 점심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시해서 그런지 한 번에 먹는 양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위장약이나 소화제가 많이 팔리는 나라도 드물며, 실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한국인의 위용량이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는 말이 있다. 영조 때 중국에 다녀온 홍대용은 그쪽 밥그릇이 폭 찾잔만 하더라고 하였고, 인조 때 일본에 다녀온 김세렴도 일본인들의 한 끼가 쌀밥 두어 줌 밖에 되더라고 하였으니, 우리 조상들 눈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살아가는지 신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 진영을 염탐하고 온 보고

를 보면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조차 하루 한 되로 세 끼를 먹으니 아무래도 왜군이 오래 버틸 것 같아는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수저, 밥그릇은 지금보다 훨씬 커서 숟가락 길이는 통상 25 내지 30 센티미터이고, 밥주발은 높이 15센티미터의 굽 달린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밥 먹을 때에도 숟가락을 지금처럼 숟가락 사이에 끼워 잡고 떠먹은 것이 아니라 주먹 왼손에 끼워 잡고 떠먹었던 듯 하다.

옛날의 끼니로는 가장 기본적인 아침밥과 저녁밥 외에 낮밥과 점심이 있었다. 예전에는 점심을 낮밥이라 불렀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두 끼로 해결되었지만, 여름에는 활동시간이 길어 낮밥을 먹었다. 점심은 새벽,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간단하게 먹는 간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몇 끼나 먹은 걸까? 19세기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민가에 2월부터 8월까지의 점심을 더해 세 끼를 먹고,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두 끼를 먹는다고 하였다. 17세기 초 이유태는 힘든 일을 하는 사내종에게는 1년에 6개월은 두 끼를 먹이고 나머지 6개월은 세 끼를 먹이며, 재집종에게는 7개월은 두 끼를 먹이고 5개월은 세 끼를 먹이라고 살림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18세기 윤기의 '반중잡영'에서도 성균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유생들에게 2월의 봄 석전제부터 8월의 가을 석전제까지는 세 끼를 먹이고, 가을 석전제부터 이듬해 봄 석전제까지는 두 끼를 먹인다고 하였다.

한편 왕은 보통 하루 다섯 끼를 먹었다. 초조반, 아침수라, 낮점심, 저녁수라, 야참을 먹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편차가 커 영조는 이른밤을 먹지 않다가 35세 이후로는 점심도 빠뜨려 하루 두 끼를 먹었고, 정조도 하루 두 끼만을 먹었는데 반찬도 작은 접시에 서너 가지만 담아 먹었다고 한다.

하루 세끼 라는 말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말 도시민들 생활에서 시작되었다. 엄청나게 늘어난 활동량 때문이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 넷. 췌신의 악몽, 고문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이 동원되는데, 일반적으로 평문이라 하여 말로 올려대어 자백을 받아내었다. 하지만 쉽사리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형문이 뒤따랐다.

먼저 매를 치는 신장(訊杖) 있었는데, 길이 1미터 정도에 아랫쪽 치는 부분은 너비 2.5센티미터에 두께 6밀리미터 정도로 겨우 그 정도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 번에 서른 대, 사흘 뒤에 다시 쳐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도적의 경우에는 종 종 발바닥을 쳤는데, 이를 난장(亂杖)이라고 했다. 발바닥을 치다가 빗맞아 발가락이 떨어져나가는 일이 잦아서, 흔히 문헌에 난장을 발가락 뜯는 형벌이라고도 하였다.

매질만으로 자백을 못 받아낼 경우에는 무릎을 누르는 압술(壓膝)을 가했다. 사기 조각이나 자갈을 널 위에 깔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자갈을 부어 뭉뚱이로 쭈서 다져놓고는, 그 위에 다시 널을 올려놓아 사람이 올라가 짓밟는데 급기야 죽기도 했다.

신장을 치고, 압술을 가해도 자복하지 않으면 달군 쇠로 지지는 낙형(烙刑)을 가했다. 조선시대의 낙형은 숯불에 달군 쇠로 발바닥을 지지는 것이었다. 낙형을 흔히 단근질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단근(斷筋)이란 도둑에게 가하는 형벌로 발뒤꿈치 힘줄을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발다닥을 지지는 것이 발뒤꿈치 힘줄을 끊는 것과 비슷하여 와전되어 굳어진 말이 되어버렸다.

그외에도 흔히 알고 있는 주리틀기와 머리채 잡고 휘두르기, 뺨 치기, 발로 차기, 귀밑머리 잡아 뽑기, 나무집게로 급소를 집어 비틀기 및 붉은 뭉뚱이로 찢러대는 주장당문(朱杖撞問)이 있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애매하게 생사람을 잡는 일도 많았다. 현종 때 포도대장 이완은 갈가마귀가 달걀을 낳아채가는 것을 보고 시험삼아 종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었더니 자기가 훔쳤다고 거짓자백을 하더라는 말을 하면서, 고문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다.

#### 다섯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비극

예전 밥을 먹을 때는 모두 독상을 받았다. 아이와 어른이 겸상을 하



는 수도 있었으니 예컨대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만큼은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풍습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여 이마를 마주 대고 앉아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시시콜콜 잔소리와 꾸중이 떨어지게 된다. 가뜰이나 어려운 아버지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종종 대 환해도 연안의 이동이라는 자가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다가 밥사발로 아버지를 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나 인륜에 대한 무지한 탓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더구나 공부를 아버지에게 배우면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양반집 자제들은 대두분 특별히 가정교사를 두거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친구에게서 배웠다.

6세기 이문건은 자식을 직접 가르치다 남만도 못 한 사이가 된 예이다. 이문건에게는 어려서 심한 열병을 앓아 온전치 못한 아들 이온이 있었다. 이온이 열여덟 살 되던 해에 이문건이 모친상을 당해, 같이 3년간 시묘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나 이온은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 했다. 그때 마다 성격이 급한 이문건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주먹질, 발길질을 하고, 널빤지나 대마무로 때리고 등판이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렸다. 그의 일기에 자식을 향해 '사람새끼가 아니다.' '쥐새끼 같은 놈' '벼리지 같은 놈' 하고 욕을 써 놓을 정도였다. 이런 이문건도 손자에게 만큼은 매 한대 제대로 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였으며 이온이 죽은 후에는 '슬하의 자식 하나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너를 보내게



되니 예전에 너를 대할 때마다 노기를 띠고 꾸짖기만 한 일을 생각하면 내 눈물이 피가 되어 흐르는구나 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 여섯 옷실 잘라 갈라선 부부

조선시대 평민, 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옷실을 잘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혼인관계를 끝내는 수세가 있었다. 이혼으로 옷실 잘라주는 것으로 짐작되듯이 일반 평민이나 노비의 이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행해졌다.

양반은 지아비가 아내를 버리는 것과 나라에서 강제로 이혼시키는 것 두 종류의 이혼이 있었다. 나라에서 관여한 경우는 사내종과 양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소생 자녀를 노비로 삼고 이혼시키거나, 한번 결혼한 사람이 청처를 두고 또다시 결혼하는 중혼의 경우, 남편을 매 때려 처벌하고 두 번째의 처와 이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칠거지악이라는 굴레가 있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을 못 낳은 것, 음란한 것, 투기하는 것, 고질적인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벽이 있는 것으로 도대체 치 일곱 가지 겨우에 들지 않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하지만 본처의 경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다. 침을 두어 아들을 낳으면 되기 때문이다. 삼불거—칠거지악을 저질렀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아내, 남편과 함께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아내,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켜놓은 아내는 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는 세종 때 찬성 이맹균이 제집종을 첩으로 삼았는데, 질투심에 불탄 정치 이씨가 첩을 마구 때리고 머리털을 자른 뒤 움 속에 가두어 굶겨 주었다. 이때 이씨는 칠순이 가까운 할머니였는데, 가장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라 하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맹균을 파직시켜 황해도로 귀양을 보낸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언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될지 모르는 첩 자리야 말로 아슬아슬하기만 했다.

## 우리의 친구 완득이

---

### • 조재숙

주인공인 완득이는 춤꾼 아버지

겉모습은 호남형인데 입만 열면 확 께게 만드는 말더듬이 삼촌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베트남이 고향인 어머니가 계신다.

돌아어 친구 해주, 완득이와는 너무나 다른 공부 잘 하고 목표가 확실한 여자 친구

-제발 통주 좀 죽여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안 죽여주면 나 또 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속에 나오는 통주가 빼놓을 수 없는 담임이십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교회에 찾아와 선생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하소연도 하고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늘 딱딱해 있고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는 불량학생에 가까운 완득이에게 재미있고 유쾌한 주변 인물들로 세상과 소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합니다.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도 알게 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이웃의 좋은 친구입니다.

이 소설속에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 내가 장차 하고 싶은일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입시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하나 이문제에 시원하게 주장하는 이도 뭘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이나 교훈적인 말을 하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통해 열등감으로 가득차있던 완득이를 성장하게 했는지를 말이죠

완득이를 통해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풍풍 언 가슴을 녹여 보세요.

괜찮다. 괜찮아.(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장영희 에세이)

• 김은경

김연아 선수의 우아하고 세련된 표정 연기와 쭈우욱 뻗은 팔다리, 화사하고 아름다운 유니폼에 넋을 잃은 두 딸이 스케이트를 타러 가자고 연신 졸랐다. 광화문 광장은 멀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상암 스케이트장으로 출발!! 한껏 들뜬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일요일 오전에 사람 적은 시간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하에 출발. 에그에그 어찌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스케이트장은 어디론가 살아지고 썰매장만 있네." 엄마!! 아이 참!!" "잘 좀 알아보지." 남편과 아이들의 원망어린 말투.

하필이면... 오늘 그것도 상암에 스케이트장이 없단 말인가? 우이쉬

괜찮다. 괜찮아. 마음을 추스리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내가 하는 말" 오늘 차 타고 드라이브 하니까 괜찮다. 역시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드라이브 맛은 꿀맛이다. 우리 서오릉으로 가볼까? 순전히 노지 스케이트장이어서 시설은 좀 그래도 괜찮다."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스케이트장이 있다니 땡큐!!

장영희 선생님의 "하필이면을 해석하는 기술"을 내 생활에도 적용시켜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장영희 선생님은 장애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때가 육체적 장애를 정신적 장애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동정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란다. 하루하루를 편견의 벽에 부딪치면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장애인으로 암투병이라는 시련을 당차게 밀어내며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다. 미술관이나 음악회에 가지 않아도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매순간 사람냄새나는 사람이었음을, 하루를 무사히 살아온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 절망과 희망은 늘 우리 가까이 있기에 넘어져서 힘들어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고, 정의와 선의, 용서와 격려의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고 알려주신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람때문에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보여도, 일상이 늘 한결 같아도 괜찮다.





1994년 1월 28일

• 1994년 1월 28일 30 • 1994년 1월 28일 1471-4 • 1994년 1월 28일 [www.zplb.or.kr](http://www.zplb.or.kr)